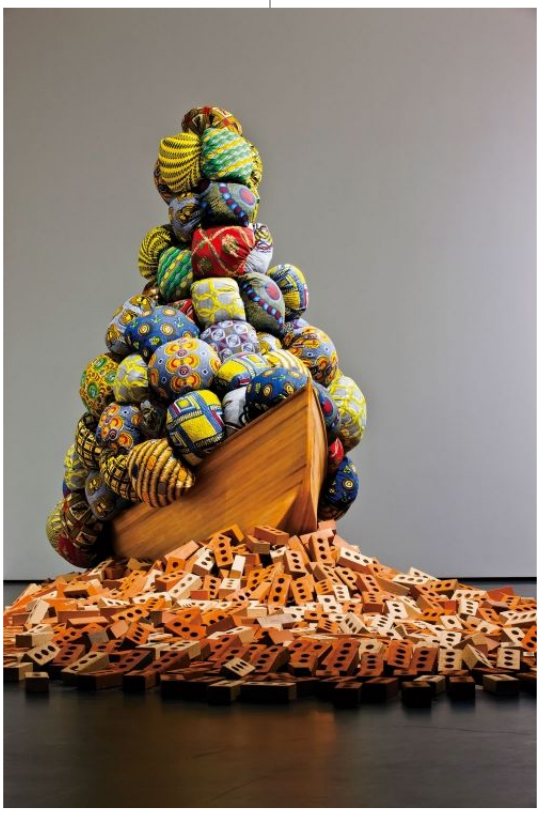
2017키아프아트서울

MARKET

2017 / 09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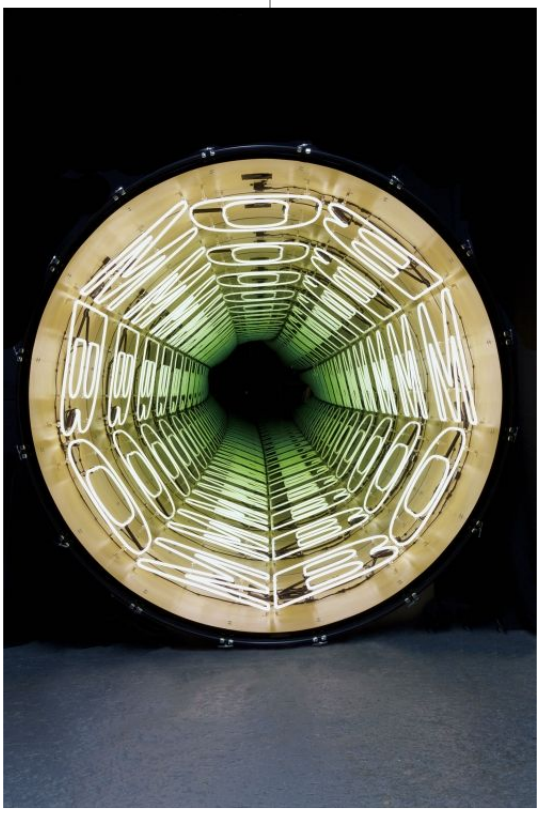
ART IN CULTURE

작가 중심의 페어로!
2017키아프아트서울(http://kiaf.org/2017/ko/) 9. 21~24
코엑스홀 A&B



바르텔레미 토구오 <ROAD TO EXILE> 혼합재료
420×250×300cm 2013_2016KIAF 출품작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2017 ART SEOUL)'가 9월 20일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총 3일간 열린다. 이번 페어에는 갤러리페로탕(Galerie Perrotin)-과 싱가포르의 에스티피아이(STPI)갤러리가 새로 참여하는 등 13개국 167개 갤러리가 참여한다. 한국 최대의 아트마켓으로 자리 잡은 KIAF의 올해 전략은 무엇일까? 바로 '하이라이트' 섹션과 '솔로 프로젝트'를 새롭게 선보인다. 하이라이트는 3명 이내로 작가를 엄선하여 그들의 신작이나 미술사적으로 가치를 평가받는 작품을 따로 모아 선보이는 전시다. 이 섹션에는 갤러리조선, 모리유(Mori yu)갤러리(일본), 초이앤라거(Choi & Larger)갤러리(독일) 등 총 10개의 갤러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반 나바로 <Bomb, Bomb, Bomb> 2014_2017KIAF
갤러리현대 출품작

솔로 프로젝트는 잠재력 있는 신진작가를 발굴하거나 중견작가를 재조명하는 1인전으로 구성된다. 총 11개의 갤러리가 참여하는 이 섹션에서는 상업화랑에서 황혜선, 갤러리데이트에서 최병소, 타이완의 제이피아트센터(J.P. ART CENTER)에서 헝 유쉬(-Hung Yu-Shi) 개인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온라인 프리카탈로그'를 통해 개막 한 달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갤러리의 대표 출품작을 미리 만나 볼 수 있다. 페어 기간 중에는 특별전 및 토크프로그램 등도 함께 마련된다.